

1960년대 한국 여성의 화장 특성 연구
- '여원', '주부생활' 여성지를 중심으로 -

김민제* · 박혜원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Make-up Characteristics and Image of
Korean Women in 1960s

- focused on monthly womens magazines -

Kim, Min-Je* · Park, Hye-Won

MA.,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the woman's beauty makeup trend had been changed in 1960s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woman's make-up in that period.

For this study, a lot of documents and papers related to the woman's make-up were collected and reviewed. In particula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woman's make up trend in 1960s, a lot of women's pictures and makeup-related articles from 143 volumes of woman's magazines such as Yeowon and Jubusaenghwal were collected. Among the 624 pictures, fifty two pictures which were good enough for studying the total face and makeup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period of this study ranges from 1960 through 1969 and the analysis is focused on skin expression, eyebrow, eye shadow, eye line, lipstick, and brusher and through the related articles, the intention and contents of make up. were delivered and found out.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early 1960s, the woman's make up was characterized by the make up ranging from unnatural and gray skin expression to dense pink skin expression, giving natural and glossy tint onto the skin and in particular putting a bright accent on the eyelid, eye or lip.

In the mid-1960s, the make up style expressed skin more naturally, giving more shading on the eyelid, nose and lip, thus having cubic make-up.

In the late 1960s, the make up became more refined and harmonized by using colors according to the TPO (time, place and objective) and skin color.

The study results show that the women in 1960s pursued the "cute and young looking image" and used the make up to express their images young and cute.

In the mid 1960s, the minimalism which pursued the pure and simple make up appeared in US. That trend affected the make up style of Korean women and hence Korean women showed more natural make up style in the mid and late 1960s.

Key Words : Korean women in 1960's(1960년대 한국여성), Make-up Characteristics(화장 특성)

I. 서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능은 인간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어 타인과의 사이에서 좀 더 아름답게 보이고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다양한 연출로 자신의 신체를 장식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 사회적 분위기, 시대적 미의 기준 등의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현대에 와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모에 대한 표현이 더욱 다양해졌다.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미적 욕구를 표현하는 수단 중 하나가 화장이다. 따라서 단순히 얼굴을 중심으로 한 외면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행위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화장은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1960년대는 산업화가 이루어짐에 따른 여성 경제활동의 현저한 증가와 함께 복잡 다변화 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활발한 변화가 이루어진 과도기적 시기였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가정내에서 가사와 자녀 양육문제 등에만 국한되던 전통사회의 생활관습에 얽매었던 여성의 역할이 사회생활을 겸하는 형태로 변천되어 갔다. TV방송국이 시작되었고 서양문화 수용, 새로운 대중매체의 등장, 여성지의 창간 등으로 생활정보력을 갖추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이 유행정보를 접하게 되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의 시대에 들어선 1960년대 우리나라 여성의 화장특성을 살펴 보아 한국여성의 미적 표현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는 아름다움이 여성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역할이나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리 표현되는 요소임을 감안할 때 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함께 고려한 여성의 미를 규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이론적 근거를 위해 여성화장 관련 문헌 및 논문을 고찰하였고 1960년대 여성의 화장 특성을 내용 분석하기 위해 국회도서관 월간지 소장 「여원」, 「주부생활」 1960년부터 1969년까지의 총 143권을 대상으로 화장을 한 여성

의 사진과 여성미용 정보, 생활정보에 관련된 기사를 수집하였다. 사진과 기사 수집은 카메라나 스캐너를 이용하였고 총 624장 중 전체 얼굴 및 메이크업 특성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양호한 여성 얼굴 109장을 선별하고 다시 연도별로 나누어 화장 특성이 명확한 52장을 최종 연구대상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범위는 1960년부터 1969년까지이다. 분석은 피부표현, 아이브로우, 아이섀도우, 아이라인, 립스틱, 블러셔 등의 항목별 표현법을 고찰하여 내용 분석하고 관련기사를 통해 화장 의도와 화장내용을 보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 · 문화적 격동기와 여성

1960년대 우리나라는 사회 문화 전반에 많은 변화를 겪은 과도기로서 특히 사회적으로는 4.19의거와 5.16혁명을 거친 정치적 격동기였다. 4.19직후 지식인을 중심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참여가 급진적으로 고양되었으며 민족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통일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여론도 활발하게 형성되었다.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출범한 제 3공화국은 조국 근대화의 가치를 내걸고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갔다.

그리하여 한국 경제는 제1차(1962~1966) 및 제2차(1967~1971년)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에 연평균 8.8퍼센트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이어지는 제3차,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도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 기간의 놀라운 경제 성장의 속도는 오늘날 우리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뚜렷한 기여를 하였지만 하층 노동자의 착취와 빈부격차라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자원도 기반 사회도 없는 한국이 급격한 경제 발전을 위해 선택한 것은 저임금 노동력을 기초로 한 수출증대였다. 주로 바, 가발과 섬유, 의류,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제품의 생산 라인에는 주로 농촌에서 무작정 상경해온 여직공들이 일을 하였다.

그들은 순종적으로 고분고분했고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 당연시 되었으며 집안의 기동인 장남의 학업을 위해서는 딸아이 장래꿈은 덜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던 이유에서이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영화감독인 홍은원이 1965년에 감독한 <오해가 남긴 것>에서는 빈곤의 시대에 수많은 여성이 국가를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1960년대 현실이 비판적으로 그려지고 있다¹⁾.

변화된 사회에서는 가족과 일터의 분리가 필연적이었으며 이 시기 여성의 주부로서의 삶은 과거와는 다른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²⁾. 현모양처의 지침서는 따로 없었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된 현모양처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것은 여성 자신의 삶과는 무관한 것으로 대부분 보살핌 노동과 관계되어 있고 알뜰한 살림살이를 기초로 하여 순종, 보양, 특남 등이 강하게 요구된 것 이었다³⁾.

당시의 영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비롯한 모성멜로 드라마는 이러한 모성 신화의 한 단면을 보여 준 영화였다. 또한 1969년 대한 주부클럽 연합회에서 학문과 예능, 효행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여성인 신사임당을 한국 여성의 귀감으로 삼아 신사임당 상을 제정하였고 우량아 선발 대회가 열려 순종, 육아에 최선을 다하는 여성의 사회적 기대감이 나타났다.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한 노트- 당신은 좋은 아내이십니까?”라는 글과 주 생활비를 적는 가계부 쓰는 요령, 미싱 광고 등이 여성잡지에 게재되기도 하여 근검절약의 미덕이 우선으로 꼽히기도 하였다. 사치스러운 여성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심지어 여성의 사치가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행으로까지 규정되었다.

여성지의 경우 주부생활과 여원, 여성동아, 여성중앙 등의 창간으로 기성복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기성복에 대한 개념이 확산되었으며 여성복의 유행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⁴⁾. 또한 양장생활이 보편화 되고 계절에 따라 발표되던 서양의 컬렉션에 관심이 집중되고 신문, 잡지, TV등을 통하여 서양의 작품들이 직, 간접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하였다⁵⁾. 특히 TV의 보급은 국민들의 문화의 측면을 바꿔 놓았는데 TV출연자의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을 따르는 유행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2. 생활개혁과 패션문화

1960년대 우리나라는 세계무대를 향해 발돋움하던 회복의 시대로 정부의 주도아래 집중적으로 국가 산업이 발전된 시기이다. 기술력 보다는 저가의 노동력에 기반을 둔 경공업 중심의 산업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섬유산업이 그 대표적인 예로 섬유산업은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국가 재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는 사람들의 생활이 점차로 안정되어 가면서 패션에 눈을 뜨는 사람도 있어 재건복, 향아리 치마의 투피스, 개량한복, 맘보바지 등이 유행하였다.

60년대는 양장이 일상복으로 자리를 굳힌 시기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관과 착용이 편리한 양장을 선호하게 되면서 한복의 불편함을 보완하고 값비싼 견직물 대신 좀 더 저렴하고 착용이 편리한 합성섬유를 이용한 개량한복이 선보이기도 하였다. 개량한복 가운데 서양식 드레스의 느낌이 가미된 아리랑 드레스가 있는데 서구식 드레스와 한복의 모양을 절충한 것으로 주로 무대 의상으로 입혀졌다. 그러나 한복의 미를 훼손시켰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여 아리랑 드레스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실패작으로 남았다⁶⁾.

한복을 개선한 신생활복으로 새 정부가 강조한 생활개혁의 일환으로 남녀 모두 의무적으로 재건복(신생활복)을 입도록 하여 양장을 일상화시켰는데 이는 활동을 간단하게 하고 손질하는 시간을 절약하여 경제적인 이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그림 1>⁷⁾.

또한 가수 윤복희가 입은 미니스커트가 센세이션을 일으켜 마이크로 미니에 이르기까지 발전하여 풍기문란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그림 2>⁸⁾⁹⁾. 우리 복식에 거의 혁명이라 할 수 있었던 미니의 물결은 40~50대 여성에게까지 퍼져나가 마침내 중년 주부까지 무릎을 드러내기 시작했다¹⁰⁾. 당시 경범죄 처벌법을 만들어 미풍양속이란 명분으로 미니스커트를 단속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경찰의 단속과 기성세대의 거부감이 오히려 여성의 반발심을 불러와 미니의 열풍을 부채질했다. 스커트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미니를 입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롱부츠를 신고 긴 코트를 덧입는 것이 멋쟁이 사이에서는 공식이 되기도 했다. 후반에는 스커트와 함

깨 통이 넓은 판탈롱이 유행하였는데 팬츠는 세계적인 흐름인 유니섹스 의상이 유행하면서 점차 널리 입혀지게 되었고 여성들이 정장 팬츠를 많이 입게 되면서 벅타이의 사용도 눈에 띄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기 시작한 진은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주로 젊은이들이 입었으며 남녀 구분 없이 대체로 몸에 붙는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1960년대의 많은 여성들이 자신만의 디자인을 고수하기 보다는 유행을 따르기를 원하였고 맞춤복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디자인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기성복들이 시중에 많이 출시되자 이와 맞물려 기성복은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다. 이로써 1960년대 후반기부터 차츰 기성복의 입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의류 소재면에서는 화학 섬유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3. 서구적 외모 동경과 화장법의 대중화

1) 서구적인 외모의 유행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화장은 이제까지 영화 스타들을 중심으로 한 획일적이 모방의 단계에서 벗어나 연령과 대상이 확대되면서 표현형태의 다양성, 개성이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재클린은 1950년대의 직선적이고 형식에 얽매인 화장을 고상한 신선미로 대체한 1960년대 유행의

선도자였다. JoHn F. Kennedy와의 화려한 결혼식은 젊은 여성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그녀의 완벽한 화장, 진한 마스크라로 강조한 눈 화장과 눈썹, 티 없이 깨끗한 피부, 황갈색의 립스틱을 바른 그녀의 공식석상에서의 차림새는 건강하고 젊은 30대 매력의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비틀즈의 등장, 히피족, 우주적 느낌의 의상의 출현과 함께 60년대 중반으로 갈수록 화장도 더욱 장식화 되고 극단적이며 대담하게 전개되어 분홍, 초록, 보라색으로 염색된 기하학적 가발과 함께 유선형으로 두껍게 그린 아이라인, 인조속눈썹의 인위적인 눈 화장이 강조점이 되었다.

미술사조의 영향으로 기하학적 표현을 눈의 화장 패턴으로 응용하거나 아이라이너를 눈 밑에도 진하게 그렸는데 눈 꼬리에서 두 줄로 만나도록 그리기도 했다. 또한 립스틱은 핏기 없이 창백하게 보이는 페일 글로스, 눈 화장은 아이새도우, 아이라이너, 마스크라에 인조속눈썹으로 눈에 띄게 하여 일명 ‘꽃같은 어린이’ <그림 3>¹¹⁾라 불리는 화장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대화, 서양문화 수용, 산업화로 인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새로운 대중 매체의 등장, 생활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 60년대 한국 여성의 미의 표현은 더욱 다양하였다. 대중 매체의 발달로 인해 해외 유행과 동시대적인 유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서양적인 미에 대한 동



<그림 1> 신생활 간소복 패션쇼(1961)
-한국여성 문화사 2, p.202.



<그림 2> 윤복희의 미니스커트
-http://blog.naver.com/ooplhdh/10033291567

경은 서양식 메이크업을 유행시켰으며 인기 외국 여배우의 이미지를 닮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1953년 5월, 제 1회)가 개최된 후 다양한 미인대회<그림 4>¹²⁾가 개최되기 시작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일부에서는 미인 대회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미의 기준을 외적인 것, 서양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선발한 여성을 대표 미인이라 함에 대한 비판이었지만 우리의 근대화는 서구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자연히 우리의 이상은 서구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외모도 서구인의 외모를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게 하여 미스 코리아 식 미의 기준에 의해 백색 피부의 서구적인 체형을 한 여성이 이상적인 여성상이 되었다¹³⁾.

1960년대 서양의 대표적인 배우인 브리지트 바르도의 크고 아름다운 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화 배우인 김지미<그림 5>¹⁴⁾, 남정임<그림 6>¹⁵⁾의 화장분위기, 헤어스타일, 패션 등은 당시의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여성지 '주부생활'에서는 "현대의 미는 얼굴보다 다리의 각선미라는 철학에서..."라며 여성의 미를 가꿔주는 국내에 단 하나뿐인 국제 차야밍 스쿨<그림 7>¹⁶⁾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당시의 이름난 배우, 미스코리아, 패션모델 등 미의 여신이 배출되는 곳으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었다¹⁷⁾. 또한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기 위한 비결 등 정형체조, 마사지 방법 등에 대해 그림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였다¹⁸⁾.

여성지 '주부생활'에서는 "이처럼 미니스커트 시대로 돌입하면서 빠질세라 등장한 것이 미스 각선미 대회<그림 8>¹⁹⁾로 한마디로 여성의 미를 여러 각도에서 점수를 매기려는 세분화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면서 당시 대회의 사진을 실어 진정한 미니스대의 미인을 소개했다²⁰⁾.

1960년대에 헤어스타일은 미니스커트와 함께 정수리에 양감을 준 보브스타일,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바가지 스타일. 또는 트위스트 스타일이라 부른 헤어스타일이 유행 하였다²¹⁾.

이처럼 1960년대는 서구여성의 외모를 동경하는 경향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림 3> 꽃같은 어린이 화장
-20세기 화장문화사, p.165



<그림 4> 한국일보 주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1964)
-여원, 1963.8



<그림 5> 김지미(1965)
-http://cafe.naver.com/cinelo
ve/5549



<그림 6> 남정임, 어느
여배우의 고백(1967)
-http://cafe.naver.com/cinelo/5549



<그림 7> 국제 차야밍 스쿨
-주부생활, 1967, 7



<그림 8> 각선미 대회
-주부생활, 1969.2

2) 화장법의 유행과 대중화

여성잡지 ‘여원’에서는 당시의 화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투명화장(유리화장)이란 글자 그대로 각자가 지니고 있는 살결이 투명해 보이도록 손질하는 것으로 전연 화장한 부자연성과 기교가 느껴지지 않는 화장법입니다”²²⁾라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눈을 강조한 화장으로 ‘여원’에서는 “당시의 최근 유행에 따라 눈 화장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정도가 지나치게 눈 가장이를 그려서 눈의 매력을 손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²³⁾라고 하면서 눈썹의 수정 법<그림 9>²⁴⁾을 다양하게 소개하였다. 광택 있는 피부표현을 위해 유분이 많은 라놀린 오일을 조금 덧바르는 방법을 일부에서 쓰기도 하였고 눈 화장은 청색 아이섀도우를 조금 바르거나 아이라인만으로 눈의 윤곽을 강조하였다²⁵⁾.

당시 동양인에게는 푸른 섀도우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여성잡지 ‘여원’에서는 “전에는 일부 특수한 여성들만이 눈 화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요즘은 화장을 하는 이는 누구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화장은 대강 하더라도 눈 화장에 중점을 두고 하면 그 기술에 따라 얼굴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²⁶⁾라고 하면서 동양인의 평면적인 얼굴이 보다 입체적으로 보여 질 수 있는 화장법이나 눈썹, 아이라인을 그리는 방법<그림 10>²⁷⁾을 미용란에 소개하여 여성들은 쌍거풀 라인을 따라 대담하게 얇은 그린이나 블루 컬러로 아이섀도우를 하였다.

입술은 립 라이너로 윤곽을 크고 또렷하게 그린 다음 투명한 색이나 옅은 베이지, 브라운 컬러 등으로 안을 채워 자연스럽고 생기가 있게, 또는 여성스럽

고 육감적으로 보이게 했다. 여성잡지 ‘여원’에서는 “근대인의 입술의 화장은 우아한 지성미가 나타나도록 루즈선 1m에 달렸으니 얼굴전체의 조화에 맞도록 모양을 그립시다. 루즈색은 덮어놓고 핑크색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 동양인의 피부색에 맞게 짙은 분은 오렌지 계통이나 밝은 빨간색이 무난하고 중년 이상의 분은 좀 더 짙은 로즈나 다이크 등이 좋습니다만 해마다 유행하는 색도 변화가 많으므로 두색 이상을 준비하였다가 매니큐어 색, 장소, 의복, 밤낮에 따라 변화 있게 연구하는 것도 근대 화장법의 하나입니다”²⁸⁾라고 하며 얼굴형과 TPO에 따른 입술 화장법<그림 11>을 소개하였다.

뺨 연지는 여성잡지 ‘여원’에서는 “연지는 잘 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뺨에로같이 우스운 얼굴이 되고 맙니다. 최근에는 동그랗게 그리는 분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아직 옳은 방법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혈색이 좋은 분이나 결점이 없는 분은 거의 할 필요가 없지만 얼굴형에 따라 바르는 위치는 달라져 얼굴의 결점을 캠프라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얼굴형에 따른 화장법<그림 12>을 소개하였다²⁹⁾.

피부색은 해방 전 후의 뿌옇게 분을 바르다가 핑크계열로 바뀌었는데 여성잡지 ‘여원’에서는 “화운 데이션을 살 때 동양인에게는 짙은 핑크색이 잘 조화됩니다”라고 하였다³⁰⁾. 이후 입체화장이 들어오면서 어두운 핑크로 바뀌어갔다. 또한 투명한 피부를 가꾸기 위해 전기 마사지나 파크를 꾸준히 할 것을 권장하며 하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당시 미술계의 경향이던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아 자기 개성을 표출시키기 위해 얼굴 윤곽과 눈, 코, 입을 강조하여 현저하게 노출시키는 화장법, 이른바 입체화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³¹⁾. 여성지 ‘여원’에서



<그림 9>
눈썹 수정법
-여원, 1960.7, p.413.



<그림 10> 눈의 매력을 살리는 화장법
-여원, 1964. 1, p.264.



<그림 11>
입술화장법
-여원, 1960.7, p.414.



<그림 12>
뺨 연지 화장법
-여원, 1960.7, p.414.



<그림 13>
피부표백제
-여원, 1961. 11

는 ‘코의 화장을 잘해서 돋보이게’ 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코의 생긴 특징에 따라 새딩이나 하이라이트를 적절히 주면서 거기에 따른 눈썹 그리는 방법도 달리하는 이른바 착시를 이용한 입체 화장법을 소개하였다³²⁾.

수입영화의 영향으로 평면적인 우리나라 여성들로 하여금 얼굴을 좀 더 작아 보이게 하는 입체 화장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아이섀도우가 보급되기 전에는 주로 아이라인을 눈매의 위 아래에 그려 눈을 강조하였고 피부표현에 있어서는 60년대 전반기의 핑크계에서 어두운 핑크, 즉 오클계로 바꾸어 음영을 깊게 하였다. 1960년에는 색조 화장을 사치로 여기고 또 화장이란 직업여성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하는 인식을 바꾸어야 했고 매니큐어의 사용도 전에 없는 변화 중의 하나였다.

1962년부터 아이섀도우, 파운데이션, 매니큐어, 마스카라 등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각 여성지에서는 “보통 때와는 달리 정월께는 손 화장까지 해서 기분부터 말끔한 미인이 됩시다. 매니큐

어색은 부인들은 울드로오즈나 핑크색계통이 좋고 밤에는 진줏빛을 바르는 것이 아름답고 보통 때에는 무색이나 앵두빛이 무난합니다”라고 하면서 손 화장 도구와 관리 방법을 설명하였다³³⁾.

이시기에 유통되던 특수 화장품으로는 피부 표백제<그림 13>³⁴⁾, 연모제 등이 있었고 이를 밀랍이나 광물질류에 기계적으로 분산시켜 만든 제품으로 기미, 주근깨 제거에 효과가 있었으며 수요층도 꽤 많은 인기 품목이었다.

III. 1960년대 화장 특성 및 이미지

1. 연도별 화장 특성

1960년부터 1969년까지의 주부생활, 여원의 여성 잡지에서 수집한 사진 중 화장의 특성을 알 수 있을 명확한 사진 최종 52장을 대상으로 피부표현, 아이브로우, 아이섀도우, 아이라인, 립스틱, 블러셔 등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관련 기사를 통해 화장의도와 내용을 보충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화장 특성 분석

연도	분석대상	피부 표현	아이브로우	아이섀도우	아이라인	립스틱	블러셔	이미지
1960	 <p>-여원 60-1.2 -여원 60-6.7</p>	<p>창백한 흰 피부. 짙은 핑크빛 피부</p>	<p>도톰하거나 두꺼운 일자형(기본형) 눈썹</p>	<p>열은 피치로 쌍거품 라인 따라 바름</p>	<p>눈매를 따라 그리거나 끝을 위로 살짝 올려서 그림. 언더라인도 그림</p>	<p>밝은 빨강, 오렌지가 가미된 빨강으로 도톰하고 윤기 있게 표현</p>	<p>블러셔를 살짝한 볼, 뺨에 핑크빛의 볼연지</p>	<p>“짙은 핑크빛 화운데이션을 소량바르고 뺨 연지 바른 후 파우더 소알 발라 윤기있는 투명피부 연출함”(-여원, 1960,7,p.412~415)⇒자연미</p>
	 <p>-여원 60-8.9 -여원 60-3.4</p>							
1961	 <p>-여원 61-1.2 -여원 61-1.2</p>	<p>옅은 핑크, 밝은 베이지, 창백한 피부</p>	<p>일자형에 가까운 두꺼운 눈썹과 각진 눈썹에 끝이 살짝 올라가거나 처지게 그림</p>	<p>잘 보이지 않음</p>	<p>끝이 살짝 올라간 형태로 눈매 강조</p>	<p>짙은 빨강, 짙은 오렌지 계열로 윤기 있는 입술 표현</p>	<p>잘 보이지 않음</p>	<p>“눈썹 앞머리와 코벽에 음영주어 코를 높아보이게 함. 현대의 화장은 이러한 입체화장이 유행이며 훨씬 개성적임”(-여원, 1961, 11, p.339) ⇒개성미, 인공미, 입체미</p>
	 <p>-여원 61-7.8 -여원 61-1.2</p>							

- 「여원」, 「주부생활」

<표 1> 계속

연도	분석대상	피부 표현	아이 브로우	아이 섀도	아이라인	립스틱	블러셔	이미지
1962	 <p>-여원 62-7.8</p> <p>-여원 62-7.8</p>	<p>밝은 베이지, 창백한 흰 피부</p>	<p>두툽고 진한 눈썹. 가는 아치형으로 얇게 그림</p>	<p>열은 베이지, 브라운으로 눈 꼬리 부분을 다소 진하게 포인트 줌</p>	<p>눈 형태를 따라 동글게 그리거나 끝을 살짝 올려 그림</p>	<p>오렌지, 레드, 브라운 계열</p>	<p>핑크로 볼 앞쪽과 광대뼈를 연결하여 혈색과 함께 골격을 살려 입체감 살림</p>	
1963	 <p>-여원 63-1.2</p> <p>-여원 63-5.6</p> <p>-여원 63-5.6</p> <p>-여원 63-11.12</p>	<p>밝고 깨끗한 피부, 베이지의 건강한 피부 연출</p>	<p>도톰하고 다소 각진 잘 정돈된 눈썹</p>	<p>열은 브라운, 열은 그린으로 자연스럽게 표현</p>	<p>두꺼운 라인으로 끝을 살짝 올려 그리거나 눈 꼬리를 길게 빼서 그림</p>	<p>톤 다운된 차분한 오렌지, 붉은 브라운으로 매트하거나 입술중앙 윤기 줌</p>	<p>잘 보이지 않음</p>	<p>“큰 눈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아이라인을 눈 아래 위를 과장되게 그리거나 길게 빼서 그림. 긴 속눈썹을 붙이고 마스크라를 하여 크고 시원스런 눈매 연출. 오리리카바마크의 출현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완벽한 피부커버함” (-여원, 1963, 11, p.346~347) ⇨ 청순미, 기하학적, 서구미, 인공미</p>
1964	 <p>-여원 64-1.2</p> <p>-여원 64-1.2</p> <p>-여원 64-5.6</p>	<p>밝은 핑크, 밝은 베이지의 투명한 피부. 유분이 많은 라놀린 오일을 조금 덧바르는 방법으로 광택 있는 피부표현을 함</p>	<p>두꺼운 눈썹, 기본형에 가까운 적당한 두께의 눈썹, 눈썹 옆 움푹한 곳에 음영을 주어 골격 강조</p>	<p>열은 브라운. 풍성하고 긴 속눈썹을 붙임</p>	<p>다소 두껍고 끝이 살짝 올라감</p>	<p>자연스러운 레드, 오렌지</p>	<p>잘 보이지 않음</p>	

- 「여원」, 「주부생활」

<표 1> 계속

연도	분석대상	피부 표현	아이브로우	아이새도	아이라인	립스틱	블러셔	이미지
1965	 <p>-여원 65-7.8 -여원 65-7.8 -여원 65-11.12 -주부생활 65-11.12</p>	<p>밝고 광택이 있는 자연스럽고 투명한 피부</p>	<p>적당한 두개의 자연스러운 기본형 눈썹</p>	<p>열은 그린, 블루로 쌍거풀을 따라 자연스럽게 바름</p>	<p>눈매를 따라 두텁게 그리거나 끝을 올림</p>	<p>열은 핑크, 핑크 펄, 오렌지 계열로 생생하게 표현.</p>	<p>잘 보이지 않음</p>	<p>“아이라인을 눈매를 따라 동그랗게 그려 눈매를 또렷하고 귀엽고 청순하게 표현. 화운데이션은 3가지톤으로 알맞은 분량으로 조절해 사용하므로 자연스런 피부표현함” (-여원, 1965, 5, p.457) ⇒자연미, 청순미. “얼굴 중 가장 매력적인 곳을 찾아 자기 개성을 살리는 미용포인트로 미화시키는 화장 즐김”(-주부생활, 1965, 9, p.402) ⇒개성미, 다양성</p>
1966	 <p>-여원 66-1.2 -여원 66-1.2 -주부생활 66-5.6 -주부생활 66-7.8 -여원 66-9.10 -여원 66-11.12 -여원 66-11.12</p>	<p>밝은 핑크, 밝은 베이지로 투명하고 광택 있는 건강한 피부표현</p>	<p>적당한 두개의 눈썹을 얼굴형에 따라 끝을 내리거나 올려서 그린 후 눈의 움푹한 곳에 음영을 주고 코 벽을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골격 강조</p>	<p>톤을 달리한 자연스런 베이지나 오렌지 계열, 블루, 그린으로 자연스럽게 퍼 바름</p>	<p>눈 꼬리를 길게 빼거나 눈 모양을 따라 동글게 그림. 언더에도 때로는 강한 라인을 그리고 긴 인조 속눈썹을 붙여 눈을 강조</p>	<p>열은 핑크 펄. 투명하고 광택 있는 자연스런 오렌지 계열</p>	<p>열은 오렌지나 핑크로 자연스런 혈색을 줌</p>	<p>“입술선 강조 후 립스틱으로 입술중앙에 광택과 볼륨 줌. 코베이나, 코의 길이에 따라 음영을 주어 효과적인 입체화장 함” (-여원, 1967, 1, p.428~429) ⇒입체미, 서구미</p>
1967	 <p>-여원 67-1.2 -주부생활 67-5.6 -주부생활 67-7.8 -여원 67-9.10 -여원 67-9.10 -여원 67-9.10</p>	<p>투명 베이지 피부로 자연스럽고 광택감이 있어 투명한 피부 표현</p>	<p>두꺼운 일자형, 적당한 두개의 각이 지거나 둥근 눈썹을 그린 후 코에 음영 줌</p>	<p>열은 오렌지, 회색, 브라운 등으로 자연스런 게 퍼 바르거나 쌍거풀 라인을 따라 바르고 긴 인조속눈썹을 붙여 눈 강조</p>	<p>두꺼운 라인으로 끝을 올려서 그리거나 라인 끝을 길게 빼서 그린 후 경우에 따라 언더에도 라인을 진하게 그림</p>	<p>창백한 핑크. 짙은 핑크, 오렌지로 볼륨감을 살리거나 발랄하고 생기 있게 표현</p>	<p>열은 오렌지, 핑크로 혈색 부여</p>	<p>“입술선 강조 후 립스틱으로 입술중앙에 광택과 볼륨 줌. 코베이나, 코의 길이에 따라 음영을 주어 효과적인 입체화장 함” (-여원, 1967, 1, p.428~429) ⇒입체미, 서구미</p>

- 「여원」, 「주부생활」

<표 1> 계속

연도	분석대상	피부 표현	아이브로우	아이새도	아이라인	립스틱	블러셔	이미지
1967	 -여원 67-1.2  -주부생활 67-5.6  -주부생활 67-7.8  -여원 67-9.10  -여원 67-9.10  -여원 67-9.10	투명 베이지 피부로 자연스럽게 광택감이 있어 투명한 피부 표현	두꺼운 일자형, 적당한 두께의 각이지거나 둥근 눈썹을 그린 후 코에 음영 줌	열은 오렌지, 회색, 브라운 등으로 자연스럽게 퍼 바르거나 쌍꺼풀 라인을 따라 바르고 긴 인조속눈썹을 붙여 눈 강조	두꺼운 라인으로 끝을 올려서 그리거나 라인 끝을 길게 빼서 그린 후 경우에 따라 언더에도 라인을 진하게 그림	창백한 핑크. 짙은 핑크, 오렌지로 볼륨감을 살리거나 발랄하고 생기 있게 표현	열은 오렌지, 핑크로 혈색 부여	“입술선 강조 후 립스틱으로 입술중앙에 광택과 볼륨 줌. 코비이나, 코의 길이에 따라 음영을 주어 효과적인 입체화장 함” (-여원, 1967, 1, p.428~429) ⇨ 입체미, 서구미 은회색 입술연지, 눈병까지 유발하면서 붙여야 인공눈썹, 진한 마스크라, 아이새도, 은색, 은적색의 매니큐어 범람 등 전통적 미의식이 사라짐”(-주부생활, 1968, 2,p.151) ⇨ 기하학적, 인공미, 개성미
1968	 -여원 68-1  -여원 68-2  -여원 65-5  -여원 68-6.7  -여원 68-7.8  -주부생활 68-5.6	밝은 베이지, 핑크 톤의 투명하고 광택이 나는 피부 표현. 맨 얼굴 같은 투명피부	적당한 두께의 자연스러운 기본형 눈썹, 두껍고 각진 보이시한 눈썹.	열은 브라운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긴 속눈썹으로 깊고 시원한 눈 강조	두터운 선으로 눈 형태를 따라 둥글게 그려 눈을 크고 동그랄게 강조	창백한 핑크 펄, 은빛 펄, 선명한 핑크, 투명한 오렌지, 누드 베이지계 열을 바름	핑크로 볼륨 강싸 혈색을 부여	“자신의 피부색에 맞춘 자연스런 피부표현과 포인트 화장으로 귀엽고 청순한 여성적 매력 증진. TPO에 맞는 맞는 화장을 위한 테크닉을 다르게 한 다양한 화장법 유행”(-주부생활, 1969, 9,p.264) ⇨ 청순미, 여성미, 다양성, 개성화
1969	 -여원 69-1.2  -여원 69-4.5  -주부생활 69-3.4  -주부생활 69-3.4  -주부생활 69-7.8  -주부생활 69-7.8  -주부생활 69-9.10  -주부생활 69-9.10	밝은 베이지와 그을린 듯 건강하게 보이는 자연스런 피부 표현	너무 두껍지 않은 적당한 두께의 자연스런 눈썹	그린, 블루 등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 줌	눈매를 따라 둥글게 그리거나 눈 꼬리를 길게 빼거나 끝을 올려서 눈을 더욱 동그랄게 강조	오렌지나 핑크 펄 등으로 생기 있게, 또는 짙은 립 라인에 팔로우 채워 여성적인 연출	열은 오렌지로 자연스런 음영이나 혈색을 줌	“자신의 피부색에 맞춘 자연스런 피부표현과 포인트 화장으로 귀엽고 청순한 여성적 매력 증진. TPO에 맞는 맞는 화장을 위한 테크닉을 다르게 한 다양한 화장법 유행”(-주부생활, 1969, 9,p.264) ⇨ 청순미, 여성미, 다양성, 개성화

- 「여원」, 「주부생활」

2. 1960년대 화장 이미지 특성

앞서 살펴본 여성지 기사의 내용과 연도별 화장 특성을 종합하여 볼 때 1960년대 한국여성의 화장을 통한 이미지는 인공미와 자연미가 공존된 다양성, 개성화, 서구적, 기하학적 이미지 경향을 보였다고 분류할 수 있겠다.

1960년대 화장을 연도별로 보면 먼저, 1961, 2년도에는 피부표현에 있어 뿌연색의 피부는 얼굴이 커 보인다 하여 붉은 살색에 가까운 화운데이션으로 투명화장(유리화장)이라 하여 자기피부처럼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였고 눈썹 앞머리와 코벽에 음영을 넣어 코를 높아 보이게 하였다. 입술은 립라이너로 라인을 그리고 입술안을 옅은 색으로 채워 도톰하게 보이게 하는 입체화장을 즐겨 하였다.

1963년에는 아이라인을 눈 아래로 과장되게 올려 그리거나 길게 빼서 그리고 긴 인조 속눈썹을 붙여 깨끗한 피부에 맑고 큰 눈을 가진 생기있고 건강한 여성을 표현하였다.

1964년에는 피부는 더욱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눈썹은 끝을 올리거나 처지게 그려각자의 얼굴형에 맞게 그렸으며 코의 음영을 주어 골격을 강조하여 입체적인 화장이 더욱 본격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5, 6년도에는 아이라인을 눈매를 따라 동그랗게 그렸고 아이새도는 그린색 등 옅은색으로 쌍꺼풀 라인을 따라 가로로 그라데이션 하여 귀엽고 어려 보이게 표현하였다. 화운데이션은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색을 알맞은 분량의 비율로 섞어 사용하여 본래의 피부처럼 자연스런 피부로 표현하였다. 여전히 코벽에 음영을 주어 골격을 강조하는 반면 투명한 피부를 위해 세안이나 마사지에 주력하였다.

1967, 8년도에는 투명 베이지톤의 피부로 자연스런 광택감이 있는 거의 맨 얼굴같은 피부로 표현하기도 하였고 여전히 깊고 시원한 눈을 강조하였다. 서양인의 입체적인 골격을 표현하기 위해 코의 음영으로 코의 높이와 길이를 조절하기도 하였다. 또한 1968년도에는 기본형 눈썹에서 각진 보이시한 눈썹까지 다양한 형태의 눈썹과 함께 입술연지를 은회색으로, 마음껏 강조한 눈, 은색, 은적색의 매니큐어 등 여성의 미의식이 황량한 사막에 비유되기도 하였다.

1969년도에는 자신의 피부색에 맞는 자연스런 피부표현과 포인트 화장법으로 귀엽고 어려 보이는 여성적 매력에 한층 증가되었고 TPO별로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1960년대 초의 여성화장은 부자연스런 뿌연 피부표현에서 짙은 핑크빛으로 점차 자기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윤기나는 피부표현을 하였고 눈썹, 눈, 입술의 부분 화장은 뚜렷하게 액센트를 주는 화장을 하였다.

중반으로 갈수록 훨씬 자연스런 피부표현을 하였고 눈썹과 코에 음영을 주고 입술은 도톰하게, 특히 크고 동그란 눈을 표현하기 위한 화장에 주력하였다.

후반으로 가면서 TPO(시간, 장소, 목적)에 맞는 화장을 위해 화운데이션, 아이새도우, 아이라인, 입술, 볼연지 등의 색상, 양, 형태, 테크닉을 다르게 한 다양한 화장법의 전개를 볼 수 있었고 피부색에 따라 포인트 색을 달리 사용하는 방법으로 훨씬 세련되고 조화 있는 화장을 볼 수 있었다. 즉, 1960년대 한국여성의 화장특성은 얼굴의 구체적 화장법의 발달로 인해 서구적 외모를 들어냄으로써 자연스런 피부에 포인트만을 강조한 화장법으로 모던한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후반기로 갈수록 획일적 기법보다는 다양한 개성 연출을 위해 자연미와 서구 인공이미지를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하겠다.

IV. 결론

본 연구는 여성잡지를 통하여 1960년대 한국여성의 화장특성을 밝혀내어 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함께 고려한 여성의 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잡지를 대상으로 화장을 한 여성의 사진과 여성미용 정보, 생활정보에 관련된 기사를 수집하여 분석 하였다.

1960년대의 여성의 화장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대중매체의 등장, 서양문화 수용 등 활발한 사회변화와 함께 여성들에게 새로운 자아표현의 한 방법으로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화장을 하였고 동양의 이미지에 맞는 자신의 화장을 개발하기보다는

서양 외모를 동경하여 모방하는 단계를 거쳐 갔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초의 여성의 화장은 부자연스러웠던 50년대 후반의 피부에서 벗어나 짙은 핑크빛의 화운데이션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좀 더 자기피부처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중반으로 가면서 피부는 더욱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눈, 코, 입은 음영을 주어 얼굴이 더욱 작게 보이는 입체적인 화장을 하였다. 특히 아이라인, 인조속눈썹, 마스크라등 눈을 크고 동그랗게 보이기 위한 눈 화장에 주력하였는데 이는 귀엽고 청순하고 어려보이기 위한 화장법이라 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인공미와 자연미의 적절한 조화가 보이며 개성적이고 서구적 기하학적 패턴을 통한 모던한 화장경향을 보였다.

1960년대 여성 화장의 구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미와 자연미의 피부표현이다.

초에는 뿌옇고 창백한 부자연스럽게 피부표현을 하다가 점점 자기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윤기 나는 피부로 표현하였으며 서구적 인공미 표현을 위한 입체적 피부표현도 나타났다.

둘째, 형태적으로 기하학적 패턴의 모던화장법의 응용이다.

눈의 형태에 따라 눈썹, 눈, 입술의 부분 화장을 기하학적인 형태를 응용하여 뚜렷하게 악센트를 주어 특히 눈의 강조는 깨끗하고 완벽한 피부와 함께 맑고 큰 눈을 가진 생기발랄한 여성을 표현하고자 함이었다.

셋째, 서구 동경의 경향 중에서도 몰개성화가 되지 않는 다양성의 시도가 보인다.

후반으로 가면서 TPO(시간, 장소, 목적)에 맞는 화장을 위해 화장품의 색상, 양, 얼굴 형태, 피부색에 따른 개인별 테크닉을 다르게 하는 시도가 보인다.

이러한 화장경향을 종합해 본 결과 1960년대 여성의 화장은 자연스러운 피부, 입체적인 작은 얼굴, 크고 맑은 눈매를 강조 한 '깜찍하고 어려보이는 이미지'를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60년대 중반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순수성과 단순성을 목

적으로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의 유행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서구의 60년대 이상적 여성 형과 유사 내지 영향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몰개성적으로 획일화 되지 않고 60년대 후반부터는 개성화의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는 우리나라 현대여성의 화장경향을 분석하는 일환으로써 1960년대 여성의 미에 대한 자료 정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후속 연구로 1960년대를 연결하는 50, 70년대 화장연구와 이후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화장을 통한 이미지 고찰 연구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 1) 전경옥 외(2005), *한국여성문화사2*,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p.53.
- 2) *ibid.*, p.84.
- 3) *ibid.*, p.91.
- 4) 금기숙(2000), *현대패션 100년*, 교문사, p.213.
- 5) 전선정 외(2001),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p.328.
- 6) *ibid.*, p.226.
- 7) 전경옥 외, *op . cit.*, p.202.
- 8) “윤복희의 미니스커트”, *NAVER 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09, 7, 1,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ooplhdh/10033291567>
- 9) 전완길 외(1995), *한국생활문화 100년*, 장원, p.202.
- 10) 최경자(1996), *날개를 만든 사람들의 어머니*, 명진출판사, p.243.
- 11) 김지희 외(2006), *20세기 화장문화사*, 경춘사, p.165.
- 12) “한국일보 주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1963, 8), *여원*.
- 13) 전경옥 외, *op . cit.*, p.162.
- 14) “김지미(1965)”, *NAVER 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09, 7, 10, 자료출처: <http://cafe.naver.com/cinelove/5549>
- 15) “남정임, 어느 여배우의 고백”, *NAVER 백과사*

- 전, 자료검색일 2009, 7, 11, 자료출처:
<http://cafe.naver.com/cinelove/5549>
- 16) “국제 차아밍 스쿨”, (1967, 7), *주부생활*
 - 17) “미용체조로 몸매의 균형을 잡고 있다”, (1968, 7). *주부생활*, p.366.
 - 18)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기 위한 비결”, (1969, 3). *주부생활*
 - 19) “각선미 대회”, (1969, 2), *주부생활*
 - 20) “脚미인 뽐습니다”, (1969, 2). *주부생활*
 - 21) 전완길 외, op . cit., p.78.
 - 22) “살결을 투명하게 만드는 유리 화장법“, (1960, 4). *여원*, p.286.
 - 23) “눈썹의 수정법”, (1960, 7). *여원*, p.413.
 - 24) “손화장”, (1964, 1). *여원*, p.366.
 - 25) 대한 미용사협회(편)(1988), *미용회보 8월호*, p.40.
 - 26) 금기숙, op . cit., p.225.
 - 27) “손화장”, (1964, 1). *여원*, p.366.
 - 28) “입술화장법”, (1960, 7). *여원*, pp.413-414.
 - 29) “뺨연지”, (1960, 7). *여원*, pp.414-415.
 - 30) “화운데이션”, (1961, 11). *여원*, p.287.
 - 31) 대한화장품공업협회(편)(1986), *한국장업사*, p.40.
 - 32) “코의 화장”, (1967.1). *여원*, pp.428-429.
 - 33) “손화장”, (1964, 1). *여원*, p.366.
 - 34) “피부표백제”, (1961, 11), *여원*
-
- 접수일(2009년 9월 8일)
수정일(1차 : 2009년 10월 15일)
게재확정일(2009년 10월 19일)